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 제주특별자치도<br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| 보도자료        | 2025. 8. 10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 |   |          |
| 농업기술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| 현광철                         | ☎ | 760-780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화작목육성팀장    | 부창훈                         | ☎ | 760-782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보담당자       | 양지순                         | ☎ | 760-7514 |

## 기후변화 대응 국내 육성 만감류 노지 재배 가능성 검증 나선다

- 우리향 · 맛나봉 · 윈터프린스 망시설 활용 노지 재배 기반 마련 -
- 제주지역 노지 재배 적응성 · 과실 품질 등 종합적으로 검토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(소장 현광철)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감귤 품종의 노지 재배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‘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
- 최근 제주지역은 평균기온 상승과 겨울철 저온 발생 감소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존 시설재배 중심이었던 만감류의 노지 재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.
-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합한 국내 육성 품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적응성을 검증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사업비 2억 2,300만 원을 투입해 4개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.
- 시범농가에는 국내 육성 품종인 우리향, 맛나봉, 윈터프린스를 식재하고 있으며, 망시설과 점적관수시설, 토양피복 자재 등 재배 기반시설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.
- 이번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, 국내 육성 만감류의 노지 적응성, 생육 특성, 생산성 및 과실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 노지 재배에 적합한

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망시설을 활용한 노지 재배에서 품종별 생육상황과 착과 특성, 수확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·분석해 재배 적합성을 평가하고, 이를 바탕으로 재배기술을 확립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.

○ 국내 육성 품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, 소비자의 다양한 품종 수요에 대응하고 제주 감귤산업의 품종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부창훈 특화작목육성팀장은 “기후변화로 감귤 재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 며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육성 만감류의 노지 재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, 제주에 적합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대·보급해 미래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